





1 2

- 1
돈나푸가타 와이너리에
마련되어 있는 테이스팅 룸.
역시 전통적인 품새가 난다.
- 2
향토 품종인 네로다볼라의
독특한 아로마를 음미해볼 것.

시칠리아 와인의 자존심, 돈나푸가타 5대

그녀의 웃음은 화창했다. 와이너리 돈나푸가타Donnafugata의 마케팅을 책임지는 조세Jose다. 와이너리 안뜰에 심은 싱그러운 오렌지를 닮아서일까. 마르살라의 디저트 와인 한잔이 준 달콤한 속삭임 때문일까. 그녀의 웃음은 꾸밈이 없고 건강해 보였다.

“마르살라의 공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정말 평온하거든요.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한적한 바닷가, 푸른 포도밭, 여유 속에서 즐기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 한잔. 만약 포도밭 집 딸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 일을 했을걸요.”

그녀의 가족은 5대째 마르살라의 포도밭을 일군 터줏대감이다. 돈나푸가타의 시작은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걸 증명하듯 와이너리 한쪽에는 150년 전에 쓰던 굉장히 낡은 수레가 있다. 그 수레에 수확한 포도를 담고 말이 끌어 옮겼다고 한다. 한쪽 벽에는 그들의 와이너리가 한 세기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랄로 가족의 역사가 느껴지는 장면이다. 마르살라의 와인은 달콤한 화이트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영국인이 달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디저트 와인을 최고로 평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랄로 가족이 운영하는 와이너리 돈나푸가타는 시칠리아의 고유 적포도 품종인 네로다볼라Nero d'Avola를 개량하여 훌륭한 레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모든 건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와 열정 덕분이다.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 와이너리는 5대째 이어오고 있으니 와인업계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가업을 물려받아서 장인이 생기기 더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요. TV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세상과 접하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이 성장한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태어난 이후로 줄곧 포도밭에서 뛰놀고 와인 향을 맡으며 자라왔어요. 후각과 미각이 남달리 뛰어나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일본 만화 <신의 물방울>이 떠올랐다. 와인이라고는 마셔본 적도 없는 주인공은 포도밭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포도로 빚은 와인의 향기를 느끼는, 불가사의한 후각과 미각의 소유자다. 어릴 적부터 포도 밭새를 실컷 말고, 포도를 키우는 땅 위에서 뛰놀도록 해준 아버지 덕이었는데, 랄로 가문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뛰놀고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함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돈나푸가타의 브루슈어에는 꼭 닮은 한 가족이 시원하게 웃고 있다. 그녀는 몇 년 후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이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대에 이어 7대, 8대, 그 이후에도 돈나푸가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칠리아의 긴 역사는 유수의 세계문화유산과 명품들을 만들어냈죠. 가족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